

미술학석사 학위 논문

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 시각 · 촉각 표현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motivated by the Image of Dot
- focus on an expression sense of visual and tactile

2013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양 경 희

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 시각 · 촉각 표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motivated by the Image of Dot
- focus on an expression sense of visual and tactile

지도교수 이 명 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7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양 경 희

양경희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7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 약	i
표 목 차	ii
도 목 차	ii
작품목차	iii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점의 일반적 고찰	3
1) 점의 조형적 개념 및 정의	3
2) 점자의 구성과 특성	5
3) 작품사례	7
2. 점을 활용한 소통으로서의 시각적·촉각적 조형연구	12
1) 예술에서 소통이 갖는 의미	12
2) 소통의 요소로서의 시각적·촉각적 표현연구	13
3) 작품사례	17
 III. 작품제작 및 해설	21
1. 작품계획	21
2. 제작과정	24
3. 작품해설	32
 IV. 결론	41
 참고문헌	42
영문초록(Abstract)	44

요 약

제목 : 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 시각·촉각 표현중심으로

인간은 매일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 사회, 문화, 그리고 물질 사이에서 ‘소통’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행위자간의 소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존하고 있고 예술에 있어서도 소통은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다. 미술에서는 관객의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닌 인간의 오감(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을 통해 소통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작가와 작품, 작품과 대중, 대중과 작품사이를 시각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각과 촉각을 활용하여 점의 다양한 변화와 반복된 표현을 통해 대중과 연결한다. 점으로 소통하는 언어인 ‘점자’의 특성 자체는 언어전달이지만 눈으로 보고 읽어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며 또한 점을 통해 소통하고 정상인들에게는 그 형태만으로 아름다움을 전달 할 수 있다. 즉 점자는 가장 촉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점과 언어를 연결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점자의 구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 촉각적인 표현연구를 통해 각 개체에 점을 표현하는 다양한 즐거움을 이미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Ⅱ장에서는 점의 일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점의 이미지가 갖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찾고, 시각적으로 점은 무엇인가 확대했을 때 가장 작은 요소이지만 연속된 수많은 점은 다시 멀리 보았을 때 선으로 확정되며, 선은 면으로 확대되며 결국 점에 대한 이해가 이런 표현 활동을 이끌어 낸다. 회화의 다양한 장르의 방법론적 시각적, 촉각적 변화를 통해 대중에게 직접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소통하며 대중에게 즐거움 전달하는 다양한 표현방법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Ⅲ장에서는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계획 및 제작과정에서는 시각적, 촉각적 효과를 위한 7가지 다양한 도자기 기면의 표현연구와 수량이 많은 작품전시를 위한 벽면에 자석과 철판을 이용한 설치계획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의 이미지를 하나의 반구의 형태로 표현하였고 도자기의 물성을 활용하여 시각적, 촉각적 질감의 변화로 대중과 점의 이미지에 의한 소통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었다.

표 목 차

[표 1] 점자일람표_자음	6
[표 2] 점자일람표_모음	6
[표 3] 자음 ‘ㅂ’의 점자구성표	23
[표 4] 슈퍼화이트 소지 조합비	28
[표 5] 슬림조합비	28
[표 6] 7가지 시각적, 촉각적 연구_완성	29

도 목 차

[도 1] Georges Seurat. 1886.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5
[도 2] 김환기. 1972. 「14-Ⅲ-72」	7
[도 3] 김환기. 1974. 「7-VI-74」	7
[도 4] 광인식. 1986. 「copperplate」	8
[도 5] 한순자. 2008-2009. 「무제」	8
[도 6] 이우환. 1976. 「조용」	8
[도 7] 박영숙. 1993. 「백자접시」	8
[도 8] 김지아나. 2007 「Bowl in Bowl」	9
[도 9] 김남용. 2007 「점안의 풍경」	9
[도 10] Kusama Yayoi. 1998. 「호박」	10
[도 11] Kusama Yayoi. 2009. 「호박」	10
[도 12] Harumi Nakashima. 2004. 「Struggling Form 0402」	10
[도 13] Yuki Tanaka 와 Maki Nakahara. 2006. 「Lighting of Communication Tool」	10
[도 14] 강창성. 2009. 「Circle-Space Ⅱ」	11
[도 15] 이혁진. 2007. 「Circle Ⅲ」	11
[도 16] 백민정. 2010. 「Bloom & Blossom VI」	11
[도 17] 홍종숙. 1976. 「Self Control Ⅱ」	11
[도 18] Claes Thure Oldenburg. 1962. 「방석버거」	14
[도 19] Tony Cragg. 2011. 「I thought so」	16
[도 20] Lynda Benglis. 1971. 「cocoon」	16
[도 21] Lynda Benglis. 1971. 「Eat Meat」	16
[도 22] Anish Kapoor. 1990. 「Untitled」	17

[도 23]	김창렬. 2004. 「회귀(回歸)」	18
[도 24]	Meret Oppenheim. 1936. 「털로 덮인 잔, 받침 접시, 숟가락」	18
[도 25]	Vincent van Gogh. 1889. 「별이 빛나는 밤」	19
[도 26]	박수근. 1963. 「아기보는 소녀」	19
[도 27]	Yves Klein. 1959. 「Das Blaue Schwammrelief」	19
[도 28]	Sosho Mochida. 2008. 「LOCATION Air 2008」	19
[도 29]	Claes Thure Oldenburg. 1966. 「Soft Toilet」	20
[도 30]	김재형. 2011. 「핑키를 위한 비석」	20
[도 31]	최예진. 2012. 「Touch me_27」	20
[도 32]	아크릴 원형 제작과정	26
[도 33]	크기가 다른 석고 원형	26
[도 34]	원형의 굽	26
[도 35]	사용형 틀 도면	27
[도 36]	사용형 틀	27
[도 37]	사용형 틀 (1)	27
[도 38]	윤동주 「별 헤는 밤」 점자구성	29
[도 39]	자석 부착 사진	30
[도 40]	자석 부착 사진_전시장예시	30
[도 41]	전시 설치 도면	31
[도 42]	Detail_ (1)	32
[도 43]	Detail_ (2)	33
[도 44]	Detail_ (3)	34
[도 45]	Detail_ (4)	35
[도 46]	Detail_ (5)	36
[도 47]	Detail_ (6)	37
[도 48]	Detail_ (7)	38
[도 49]	전시장 전경 A	39
[도 50]	전시장 전경 B	39
[도 51]	전시장 전경 C	39
[도 52]	전시장 전경 D (도판 작품)	40

도 면 목 차

[도면 1] 원형도면_1	24
[도면 2] 원형도면_2	25

작 품 목 차

{작품 1} 「별 헤는 밤」	32
{작품 2} 「별 하나에 추억과」	33
{작품 3} 「별 하나에 사랑과」	34
{작품 4} 「별 하나에 쓸쓸함과」	35
{작품 5} 「별 하나에 동경과」	36
{작품 6} 「별 하나에 시와」	37
{작품 7}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38

I. 서론

1. 연구목적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행위자간의 소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사소통’은 주도권, 수용자, 방식,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하며 인간은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문화, 그리고 인간과 물질 사이에서 ‘소통’한다. 개인 간의 상호관계는 두 가지 형태의 의사소통, 즉 언어적 형태와 비언어적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이 될 수 있고, 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메시지의 완전한 해석을 고려해야만 하는 비언어적 단서를 보통 수반한다. ‘소통’은 단지 인간의 사회에서의 화두만은 아니다. 즉 미술 분야에서는 작가와 작품, 작가와 관찰자, 작가와 세상과 상호 소통하고 있다.

조형적으로 가장 기본 단위인 ‘점’의 이미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방법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작은 점은 인간의 오감(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중에서 시각, 촉각적 표현요소로 즐기고 이해 할 수 있고 다양한 변화와 반복된 표현을 통해 눈으로 보고 읽으며 시각적으로 인지하여 인간과 소통한다. 시각장애인의 문자언어인 ‘점자’는 그대로의 구성만으로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으며 작은 점(원)들을 통해 점자로 구성하면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여 정상인들에게는 점자 본연의 아름다움과 점자의 가장 촉각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점과 언어를 연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자기를 재료로 하여 점을 표현하는 texture를 연구하여 시각적인 반복과 다양한 촉각적인 변화를 통해 단순하지만 반구형의 도자기 표면에 시각, 촉각적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점자가 언어전달의 특성을 갖고 있듯이 반구형 개체의 점자구성을 통한 함축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는 이에게 다양한 texture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서 점이 갖는 의미와 또 다른 점의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도자조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점의 이미지를 시각·촉각표현중심으로 하나의 점, 하나의 원의 다양한 결합과 배치를 이용한 도자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를 국내·외 학위 논문과 관련서적, 참고문헌 등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에서는 점의 이미지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점의 조형적 개념 및 정의를 조사하고 가장 촉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점자를 활용하기에 앞서 점자의 구성과 특성 및 선행연구에 대한 기존 작품 사례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점을 이용한 소통으로서의 시각적, 촉각적 조형연구로 예술에서의 소통이 가지는 의미를 연구,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소통의 요소로서의 시각적·촉각적 표현연구를 통해 점으로서 대중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자기를 재료로 하여 점은 하나의 원으로 표현가능하며 하나 하나 개체에 7가지 시각적, 촉각적 요소의 효과를 표현하여 직접 느낄 수 있는 원안에서의 다양함과 즐거움을 찾아 연구하였다. 각 개체는 시인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의 발췌된 6구절을 ‘점자’로 배열함으로써 점의 표현과 점이 가지는 반복과 울동감을 통해 시각적으로 단순하면서도 함축된 이미지로 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점의 이미지가 갖는 시각적 요소와 촉각적 요소가 주는 즐거움을 대중과 느끼고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작품제작은 크기가 다른 두 원의 배열의 구성으로 하였다. 각 개체는 형태가 동일해야하며 벽면에 작품을 설치 시 무게를 고려하여 이장주입성형기법을 이용하고 소지는 캐스팅에 적합한 백색도가 뛰어난 슈퍼화이트 소지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시각, 촉각 표현을 하기 위한 7가지 물성적인 방법으로 도자 표면에 나타내어 준 후 건조하여 750℃에 1차 소성 후, 투명유를 시유하거나 촉각적인 변화를 위하여 부분적으로는 시유하지 않고 1250℃에서 2차 소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점의 일반적 고찰

1) 점의 조형적 개념 및 정의

점은 사전적 의미로 작고 등글게 찍은 표¹⁾로 정의하며 조형적 언어로는 점으로 시작하여 선, 면으로 잇는 기본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점이라 하면 이전부터 ‘위치는 있지만, 부분이 없는 것’ 등으로 점을 정의해왔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직선·평면과 함께 무정의술어²⁾로서 공리(公理)에 따라 규정하게 되었다.³⁾

점은 조형적으로 선의 양끝, 선의 교차, 선의 굴절, 면과 선의 교차에서 나타난다. 크기를 갖지 않고 위치만을 가지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크기를 가진다. 하나의 점을 구심점으로 주의의 집중이 된다. 점이 두 개일 경우 두 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인식되고 점이 많을 경우 긴 선이나 면으로 발전한다.⁴⁾ 다시 말해 점은 무엇인가 확대했을 때는 가장 작은 입자로 볼 수 있으며 연속된 점은 멀리서 보았을 때 좀 더 크게는 시각적으로 선이나 면, 더 확대해서는 다시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다.

기하학에서 점은 제로, 즉 최고의 간결함, 최대의 겸손함을 표현한다. 침묵과 언어를 잇는 연결, 즉 언어에 소속되며, 내적으로는 가장 간결한 형태이고 외적으로 볼 때는 최소의 기본 형태이다. 하나의 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의 표현수단이며 점들이 그 수를 더해 갈 경우 폭풍과도 같은 어떤 울림이 화면에 전개된다. 점이 모여 쌓이는 것은 또 하나의 세계, 자연 등으로 조그만 공간을 구성한다. 점의 크기가 변화하면 점은 상대적인 본질 내에서의 변화도 함께 일어난다. 점 내부에서가 아니라 점 외부에서 생겨나는 어떤 다른 힘에 의한 변화는 화면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밀어내고 이를 통해 집중적인 긴장은 곧장 소멸되며 동시에 점 자체는 생명을 잃고 따라서 이 점은 하나의 새로운 자립적인 생명을 가진 ‘선’이 된다.⁵⁾

하나의 점은 크게는 원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원은 또 다른 결합이 가능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 새로운 점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점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시각적인 변화와 움직임, 울동감, 반복을 발견 할 수 있다. 또한 점은 하나의 점으로 시작하지만 연속된 점은 가장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점에서 시간의 흐름과 같다. 이러한 점의 특성을 잘 표현한 점묘법⁶⁾ 화가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는 찰나적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무정의술어(undefined term, 無定義述語) : 무정의원소(無定義元素) 또는 무정의 용어(無定義用語)라고도 한다. 이데면, 초등기하학에서는 점·직선·평면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상호관계를 공리로 규정하고, 그 개념에 의거해서 이론체계가 수립된다. 이러한 생각은 1899년 D.힐베르트가 수학의 기초로서 공리적 고찰에 대해 발표하고, 현재의 공리주의 수학을 도입했을 때 나온 것이다. 두산백과

3) 두산백과

4) 최지숙, (2007), 「선인장을 모티브로 한 도제 화기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8

5)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997),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미술책방 002 p.

으로 즉흥적인 순간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순간적인 감정의 영향을 초월하고 고전예술과 같은 지속성을 갖는 화면을 여러 개의 점의 반복을 통해 창조하였다. 점들이 모여 또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는 순색의 작은 색점들을 캔버스 전체에 반복적으로 찍어가며 보색 체계를 이론화 하여 이것들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팔레트에서 혼합하는 것보다 더 빛나는 광도의 색채로 보이게끔 했다. 이론대로라면 전체의 색점은 멀리서 보면 함께 융합되어 보여야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개의 색점은 결코 완전히 섞여 보이지 않아 캔버스 표면에 낱알 부스러기 같은 반짝이는 효과를 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내 작품에서 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냐. 나는 나의 회화 제작법에 충실했을 뿐이다."

즉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완성하기까지는 꼬박 2년이 걸렸고 색채 습작만 40개가 넘는다. 인상주의의 밝고 혼합되지 않은 색채와 야외 풍경의 묘사를 계승했지만 엄격하게 계산된 패턴과 기하학적 형태는 그 자신의 것이다. [도 1]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⁷⁾는 모든 물질은 하나의 점에서 출발한다 하였다. 모든 회화의 시작은 하나의 원천적인 점에서 출발하고 점들이 모여 분자가 되기도 하고 분자가 모여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화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원의 모양을 갖기도 한다. 점은 모든 것의 응축이며, 모든 것의 시작이다.⁸⁾

[도 1] Georges Seurat. 1886.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2) 점자의 구성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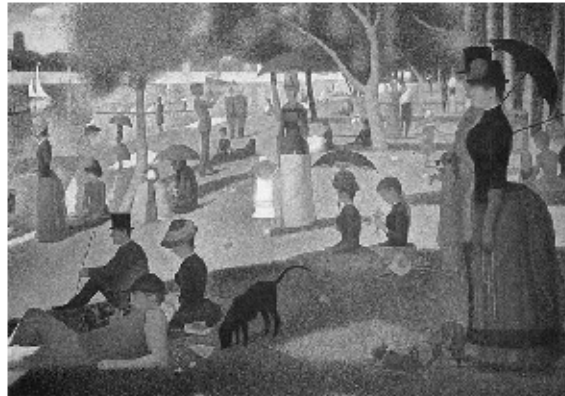
점자는 맹인용 문자로서 지면에 들기한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손가락으

6) 점묘법 : 순색이 작은 작은 점들을 캔버스 전체에 찍어가며 완성해 가는 방식이다.

Carol Strickland (캐롤 스트릭랜드), (1980), 「클릭, 서양미술사」 김호경역, 예경 p. 214

7)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 1866.12.16 ~ 1944.12.13 러시아 태생의 화가, 추상미술의 아버지이자 청기사와의 창시자로 사실적인 형체를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탄생이라는 미술사의 혁명을 이루어냈다. 미술의 정신적인 가치와 색채에 대한 탐구로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이론가 중 한 사람으로 불리며, 바우하우스의 교수로도 재직했다.

8) Wassily Kandinsky, (1997),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미술책방 002 p.



로 만져서 맹인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양각된 작은 6개의 점(종으로 3점, 횡으로 2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사각형의 점칸(braille cell)에 점의 수와 위치에 의하여 63개의 서로 다른 점형(點型)이 만들어지고, 각 점형에 글자를 배정하여 문자 체계를 이룬다. 6개의 점 하나하나에 고유번호를 붙여 왼쪽 위에서 아래로 1 · 2 · 3점을,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 · 5 · 6점 1...4 2...5 3...6을 각각 배정하였다. 브레일(braill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유는 점자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브라유(Braille, L)이기 때문이다.⁹⁾

점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선문자로 시작하여 1824년 알파벳, 아라비아숫자, 간단한 구두점 등을 제작하고 30년 후인 1854년 파리맹학교에서 최초로 맹인의 문자로 공인하였다. 그 후로 계속 수정 보완하여 1932년 영국과 미국이 189개의 약자를 포함한 「표준영어점자」를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1926년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계속 수정 보완 하였고 1982년 「한국점자통일안」이 나오게 되었다. 한글 점자는 자음, 모음, 1점 약자, 2점약자로 체계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정리되었다.

[표 1] 점자일람표_자음

자음	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중성	ㄲ	ㄴ	ㄸ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종성	ㅇ	ㄹ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9) 국어국문화자료사전

[표 2] 점자일람표_모음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ㅘ	ㅚ	ㅜ	ㅞ	ㅟ	ㅠ	ㅢ	ㅤ	ㅥ	ㅦ	ㅧ	ㅨ

점자는 만질 수 있는 직접 경험하고 소통 가능한 언어기호이다.

점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점자의 언어로 표현하여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일반인에게는 시각적, 촉각적인 점자의 표현 요소를 통해 전달하고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도 다양하게 변화된 촉각적인 표현요소를 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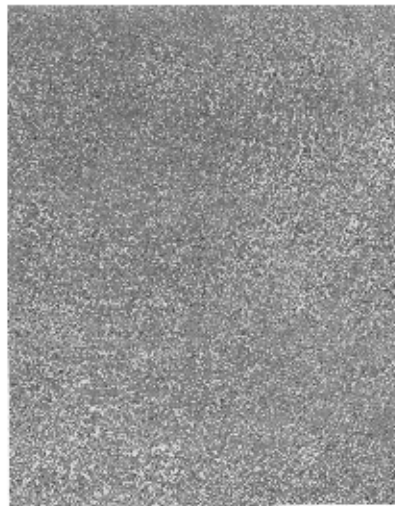
6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점에 다른 요소를 적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많은 점들의 구성안에서 다양한 변화의 표현이 가능하다.

3) 작품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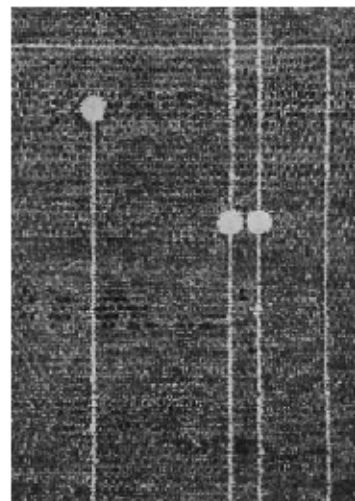
점을 주제로 작업한 작품들은 입체와 평면 사이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김환기 작품 [도 2], [도 3]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대상을 기하학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가장 동양적인 멋을 추구한 작업을 통해 점, 선, 면을 표현하였다. 초기에는 고국의 자연, 고향마당의 향기 뿜던 매화가지 사이로 등실 떠오른 보름달, 고향 바다와 하늘의 쪽빛, 백자의 선과 목가구의 면(面)구성을 자연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

되 서구의 미술이 한창 매진하고 있던 상징과 추상의 기법을 차용해 화면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후기에는 다양한 푸른색 안료를 사용하여 깊고 신비한 색감으로 그려낸 우주적 공간, 섬세한 색점(色點)의 음영은 예전처럼 산과 달, 구름과 같은 구체적인 형상은 사라졌으나 대신 이국땅에서 그가 느껴 온 오만가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색 점 하나하나에 담음으로써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해 무한 세계로 열린 문학적 효과를 가져왔다. 사그라지는 별들로 이루어진 군중 속에서 그는 어느 순간 소통과 희망을 목도하고 기하학적이고 암시적인 선과 점이 만드는 공간과 여백으로써 가장 서정적인 울림을 주는 형이상학적인 화면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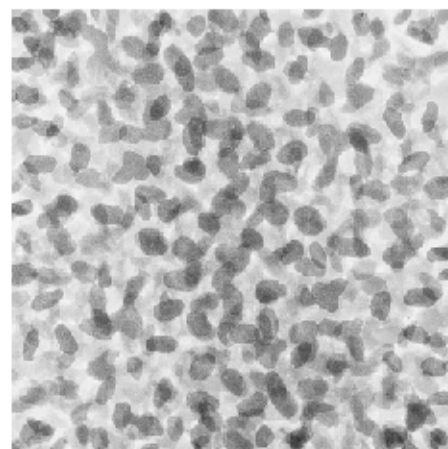


[도 2] 김환기. 1972.
「14-Ⅲ-72」



[도 3] 김환기. 1974.
「7-VII-74」

곽인식은 채묵에 의한 점묘화가로 그의 은 철저히 물질에 대한 관심과 그 물질과 화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특히 작가에게는 평면유리 조각·돌·나무·철판·점토 등 질을 화면에 부착하여 작업하였고 후기에 품 [도 4]와 같이 전통적인 일본 종이 화(和紙)에, 작은 타원형으로 단순화시킨 일점의 맑고 투명한 색상 이미지를 유동적이고적인 구성으로 전개시키는 동양적 신비감



작 품
의 대
초 기
의 물
는 작
지(和
紙)에
형 태
복 합

[도 4] 곽인식.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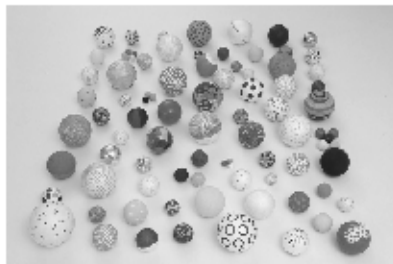
의 평면 회화를 창출해 보았다.

「copperplate」

한순자 작품 [도 5]는 지름이 1~14cm 90개의 플라스틱 공에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원이 지나는 특성을 자발성, 편견 없는 반위계적 관용, 솔직하고 즐거운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작품의 근본적인 구조적 메커니즘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결코 잃지 않고 다양한 울동감, 부드러움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작품을 통해 관찰자에게 꾸밈없는 유연함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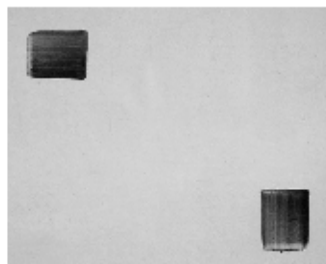
이우환 작품 [도 6]은 질서와 균형이 담겨 있는 점의 집합 상태나 선의 나열을 통해 시공간 속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화면에 움직임과 운율을 더한다. 조형적 결과물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선을 긋는 제작 과정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와 사물, 인간 간의 관계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박영숙 작품 [도 7]은 이우환의 ‘조용’ 모티브로 희고 매끄러운 박영숙의 백자 위에 푸른 점 하나, 둘 표현하여 이우환과 박영숙의 우아하고 선(禪)적인 만남을 표현하였다.



[도 5] 한순자. 2008-2009.

「무제」



[도 6] 이우환. 1976.

「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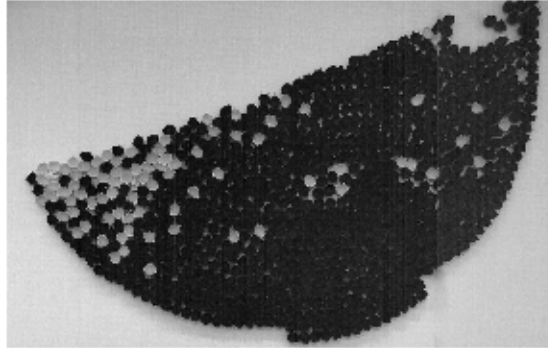
[도 7] 박영숙. 1993.

「백자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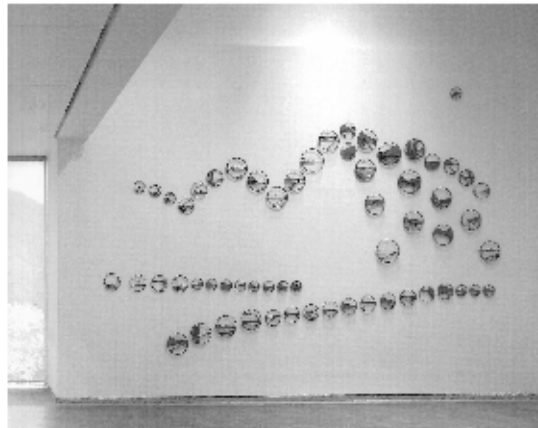
김지아나 작품 [도 8]은 자신만의 물감이자 붓인 ‘오브제 Bowl’로 그림을 그린다. Bowl은 몰드로 만들어진 도자기로서 다량복제를 암시하나, 부분 캐스팅과 가마에서 굽는 과정 중 일어나는 우연적 효과를 통해 개별성을 지닌 독립체로 탄생한다. 그의 ‘오브제 Bowl’은 우리의 시간, 기억, 사고, 명상이 품고 있는 세계, 우주를 이루는 하나의 세포이며 아프라사스(abraxas)를 연상케 한다. 벽에 드로잉으로 설치된 ‘오브제 Bowl’은 자신의 내면세계인 알을 깨고 나와 바깥세상과 화해하는 의지처럼 명쾌하고 희망적이다.

김남용 작품 [도 9]는 주물 작업으로 만든 하나의 점과 같은 원 안에 산과 들, 강 등 자연의 풍경을 담아 전시장 벽면에 통창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배치하는 원 속에

이미지들은 바닥에 놓여 지거나 벽에 걸려 작품의 라인과 빛에 투영된 그림자가 어우러진 ‘비워진 풍경’을 완성한다. 그리고 각각 고유한 풍경을 담은 한 점, ‘비워진 풍경’들은 전체가 모여 또 하나의 새로운 풍경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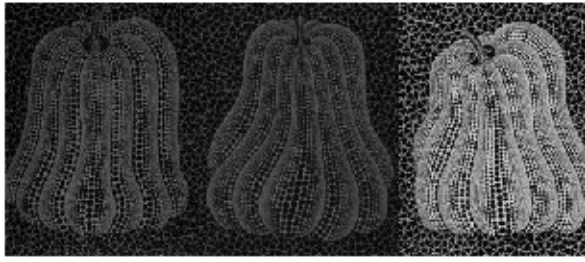


[도 8] 김지아나. 2007 「Bowl in Bowl」



[도 9] 김남용. 2007 「점안의 풍경」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 | Kusama Yayoi)는 활발한 작품 활동은 하고 있는 일본 작가로 물방울무늬가 반복해서 확산되는 무한망 시리즈에서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여 고집적인 반복의 물방울무늬를 통해 언뜻 보기에는 가볍고 경쾌해 보이는 점의 이미지로 자신을 표상한다. 캔버스 안에서 작가의 내면세계의 억압과 분노를 점으로 표현하고 오브제까지 확대하는 설치미술로 확대시켰다. [도 10], [도 11]



[도 10] Kusama Yayoi. 1998. 「호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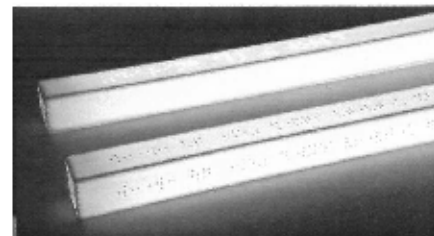
[도 11] Kusama Yayoi. 2009.
「호박」

하루미 나카시마(中島晴美 | Harumi Nakashima) 작
[도 12]는 점의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형태를 강조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은 미국의 만화가 로이 리히
타인(Roy Lichtenstein)의 작품에서 사용되었던 벤데
를 활용하여 코발트블루의 점을 통해 작품의 형태
조하였다.



[도 12]
Harumi Nakashima. 2004.
「Struggling Form 0402」

유키 다나카(Yuki Tanaka)와 마키 나카하
(Maki Nakahara)의 공동 작품 [도 13]은
장애인들의 문자인 점자의 기능과 조형적
다움을 유리공예의 측면에서 자유롭게 표
현한 작품이다. 점자가 새겨진 빛나는 조명의
를 통해 만지는 것을 통해
소통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도 13] Yuki Tanaka와
Maki Nakahara. 2006.
「Lighting of Communication Tool」

강창성 작품 [도 14]는 원이 가지는 끝없는 순환과 반복
원성 등의 다양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원의 다
의미와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조형화 시키려고 하였다. 또
이 가지는 수많은 의미들을 단순하면서 함축적인 힘을
는 원의 이미지로 자연 그 자체인 흙을 가지고 새로운
조형으로 표현하였다.

[도 14] 강창성. 2009.



「Circle-Space II」

이혁진 작품 [도 15]는 원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면과 중첩을 통한 분할 표현되는 공간과 색채를 중요시 하였
려한 색상을 통한 대비효과를 통하여 단조롭고 지루하
운 공간을 다양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던하면서도
된 색을 표현함으로써 도시공간에 어울리는 도자조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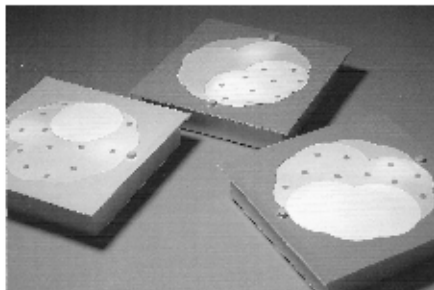
면 의
다. 화
기 쉬
세 련
표 현

[도 15] 이혁진, 2007.

「Circle III」

백민정 작품 [도 16]은 빛의 근원인 태양으로부터 상징성을 바탕으로 모티브가 된
원의 반복과 중첩을 통해 통일감과 변화 속에서 보이는 다양한 이미지와 작품의 배
열에 따른 조형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미지의 반복을 통해 동일한 구성의 시작적인
면에서 정적인 작품 속에 리듬감과 연속성을 부여했다.

홍종숙 작품 [도 17]은 상차림을 위한 테이블웨어로 음식의 미각을 돋우는 백색의
한식기를 제작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의 감사하는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
작품에 점자를 도입하였다. 식기가 단순히 용기의 개념과 함께 의미를 담는 그릇으
로 그 의미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표현하였다.



[도 16] 백민정, 2010.

「Bloom & Blossom VI」



[도 17] 홍종숙, 1976.

「Self Control II」

2. 점을 활용한 소통으로서의 시각적·촉각적 조형연구

1) 예술에서 소통이 갖는 의미

인간은 매일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문화, 그리고
인간과 물질 사이에서 ‘소통’한다. 예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악, 공연, 영화,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려고 한다. 이 중 미술
분야 즉, 현대미술에서의 가장 화두는 ‘소통’이다.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실이나 생각 그리고 정보의 전수 또는 교환¹⁰⁾이며 기호적인 면에서의 소통은 언어는 기호가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으로 기호의 역할을 하는 자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사회에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주가 되고 시각적인 것으로는 표정, 몸짓, 그림, 글자 등이 있고 청각적인 것으로 음성으로 많이 쓰인다.¹¹⁾

현대사회의 인간의 의사소통은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 전달의 뜻으로 정의된다. 즉 소통은 어떤 기호를 매개로 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예술이 언어적 기호의 특징을 가진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의사소통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예술작품은 자율적 기호이자 의사소통적 기호의 기능이라는 또 다른 기능을 갖는다. 모든 예술 작품은 자율적 기호이자 의사소통적 기호의 기능이라는 또 다른 기능을 갖는다. 모든 기호는 근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의 실질적 대상이 있어야 하고 약호(code)가 있어야 하고 전달의 운반체(매체)가 있기 마련이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게 된다. 회화 역시 약호(code)

가 있으며 전달의 운반체가 있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다.¹³⁾

이러한 기호는 하나의 점의 기호로서 소통이 가능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점의 표현요소로 감정, 느낌, 생각, 정보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요소를 전달한다.

사회학자인 쿨리(Charles Cooley)는 약 100년 전에 쓴 그의 논문에서 소통은 “인간 관계가 존재하고 발전하게 되는 기구(mechanism), 공간을 통해 상징을 전달하고 그 상징을 보존하는 수단을 포함한 모든 마음의 상징들”이라 말한바 있으며, 인류학자인 사피르(B. Sapir)는 ‘사회과학 백과사전’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양태와 사회적 행위에는 명백히 또는 함축된 의미에서 소통행위를 수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거브너(Gerbner)는 소통이란 “기호와 메시지 체계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다. 예술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을 말한다. 또한 예술은 독특한 생동감이나 정서적 함축을 가지고 인간의 가슴을 적신다. 예술적 표현은 논술적 상징인 언어가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함축성

10) 교육학 용어사전

11) 두산백과

12) 이인, (2007), 「현대사회와 소통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한국도자조형학회논문, p.4

13) 장형석, (1998), 「매체 및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시각예술의 반응 양상과 소통적 기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3

깊은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다.¹⁴⁾

2) 소통의 요소로서의 시각적 · 촉각적 표현연구

우리는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인간의 오감(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지금까지 예술작품에 시각적으로 집중하려는 작가와 작품, 작품과 대중, 대중과 작품사이의 관계를 시각적 · 촉각적 표현연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요소를 연구, 분석해보고자 한다.

① 시각적 감각의 특성

인간의 시지각은 사전적 의미로 시각(視覺):대상의 형태나 빛 등을 분간하는 눈의 작용 또는 대상을 보는 신경 작용을 말하며, 지각(知覺):감각 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 또는 그 작용에 의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시각과 지각은 감각 기관과 관련된 활동이며 사고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심리작용으로 각각 기관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뇌에서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즉, 본다는 것은 눈을 통하여 수용된 빛의 자극이 신경 부호화되어 시신경을 통해 뇌에서 종합 처리되는 과정을 말한다.¹⁵⁾

인간이 지닌 감각 중 자극과 지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장 예민한 감각이 바로 시각이라는 점과 디지털 미디어의 주된 정보전달 수단이 시각정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각정보 전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외부의 대상을 보는 행위는 단순히 생리적 신경작용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통합된 경험과 새로운 정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미를 발견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¹⁶⁾

시각은 외계의 빛이 자극하여 일어나는 감각으로 사람의 경우에는 빛이 눈의 망막을 자극하고, 그 때 생긴 신경흥분이 대뇌의 시각야에 전달될 때 일어난다. 따라서 시각적 소통은 ‘눈의 망막을 자극하는 빛을 통한 뇌의 느낌 혹은 깨달음’을 통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다.¹⁷⁾

14) 이인, (2007), 「현대사회와 소통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한국도자조형학회논문, p.5

15) Granit (1995), 「지각의 심리」 신명희 역, 학지사, p. 15-16

16) 최보아, (2012), 「매체이용 속성에 따른 교육수용자의 시각적 학습몰입 실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 박사학위 논문, p.43

17) 김은영, (2010), 「시각 · 촉각 · 청각적 감각 체험을 통한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p. 38

인간은 시각적 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비교할 때 시각적 인상에 기대고 시각에 의지하여 행동이나 기분을 설명하며, 제일 확실한 증거는 직접 보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직접 봄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관찰에 의한 의식이 발생한다.

시각은 다른 감각기관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각의 중심으로 대부분 미술 작품은 눈을 통해 시각에 의한 전달이 이루어진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시기에 접어들면서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위해 명암법이나 투시도법을 이용하여 관객으로부터 작품을 시각적 환영(visual illusion)으로 인한 공간의 깊이와 구도 및 색을 실제처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클래스 올덴버그(Claes Thure Oldenburg)의 「방석버거」 [도 18]은 굉장히 일상적인 물건들을 일상적이지 않게 아주 커다랗게 표현하였다. 팝아트의 일상적인 미술이 아닌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움을 발포제를 채운 범포 천에 채색하여 실제 크기 가로길이가 2미터가 넘는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햄버거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평범한 음식을 시각적인 크기로 압도할 수 있다.



[도 18] Claes Thure Oldenburg, 1962. 「방석버거」

② 촉각적 감각의 특성

외부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감각의 한 종류로 외수용기로 접촉에 의한 자극을 인지한다. 환경의 변화를 자극이라 하고 이러한 자극을 감지하여 생물체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촉각적 감각이라 한다.¹⁸⁾

촉각이란 오감의 하나로서 재료의 속성, 질감(texture)구성, 이전 경험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성으로서 모든 촉각적 경험을 포괄한다. 촉각은 일차적 감각이자 촉감 혹은 재질감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 촉각은 행위에 의한 통합적 감성으로서 접촉 감각, 압각, 마찰감각, 중량감, 통각, 온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들로 인한 감성들을 모두 포함한다. 로렌스(Lawrence, K)

18) 두산백과사전

는 촉각은 피부에 작용하는 접촉감각, 압각, 마찰감각, 중량감 및 충돌감각 등의 역각적 자극을 감지하는 기능이며, 이를 기초로 매끄러움, 부드러움, 딱딱함, 부피감, 팻팻함, 탄력성, 온도감 등의 인간의 정서적 촉각 감성 표현을 촉감이라 하였다. 19)

사물을 만질 때 서로 다른 표면의 성질을 받아들이는 역할 즉, 사물을 만짐으로써 성질을 발견하고 분별 할 수 있다. 20) 촉각은 사람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는 접촉을 통해 느끼고 전달된다. 예술작품에서 만들어지는 촉각적 감각의 의미는 회화를 통해서 사물의 존재와 그 속에 담긴 에너지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출하고자 한다. 접촉에 의한 자극을 인지하여 작품을 느껴보고 이해할 수 있다. 21)

예술은 오브제 22)를 통해 작가와 작품, 작품과 대중, 대중과 작가와 소통이 가능하고 토니 크랙(Tony Cragg)은 오브제를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브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부드럽거나, 걸쭉하거나, 끈적끈적 하거나, 하는 등의 촉각적인 효과를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촉각적 오브제는 예술가를 끌어당기며, 주의력과 에너지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자석과 같은 기능을 한다. 23)[도 19]

린다 벵글리스(Lynda Benglis)는 1960년대 초반에 촉각적이며 신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려 하였다. 그래서 말초적이고 육체적으로 연관이 있음직한 물질들과 그것을 이용하여 특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24) 주로 라텍스가 액체 상태에서 고체화 되는 과정을 작품화 하였고 모티프는 인체에서 비롯되었다. [도 20]은 바다에서 살아서 기생하는 해산물, 울룩불룩 돌기들이 불규칙하게 구성된 변형 옥수수, [도 21]은 육중한 고기 덩어리가 부패되어 썩여 있는 듯한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이 진행되는 느낌의 촉각적 감각을 일으킨다.

19) Lawrence, K. (1996). 「Pain and Touch」, Academic Press

20) 김수진, (2005),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21) 최예진, (2012), 「촉각적 오브제를 활용한 회화연구-본인작품<Touch me> 시리즈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7

22) 오브제 : 작품에 쓴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말이다. 상징, 문환, 피기적 효과를 얻기 위해 돌, 나뭇조각, 차바퀴, 머리털 따위 등을 쓴다. 두산백과

23) 박기웅, (2008), 「현대미술이론3」, 서울:형설출판사, p.85

24) 박기웅, (2008), 「현대미술이론3」, 서울:형설출판사, p.181



[도 19] Tony Cragg, 2011. 「I thought so」



[도 20] Lynda Benglis, 1971. 「coc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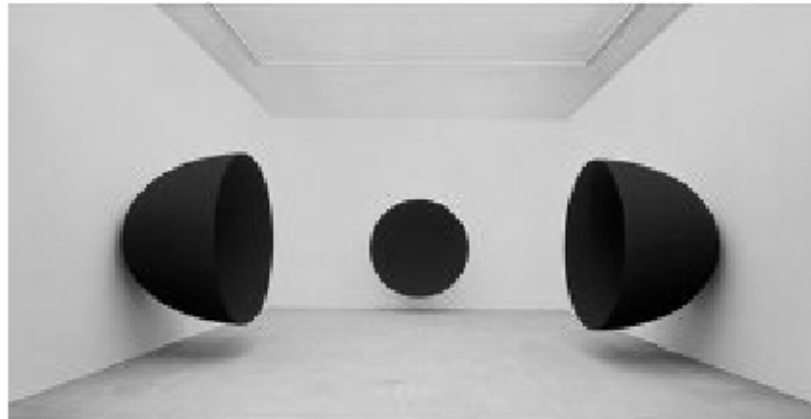
[도 21] Lynda Benglis, 1969. 「Eat Meat」

다시 말하면 예술작품과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감각은 가장 첫 번째는 시각이지만 그 다음은 촉각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와 그 속에 담긴 표면의 질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러한 감각을 통한 소통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다.

3) 작품사례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는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예술 개념과 정서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명상적인 작업을 선보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카푸어는 존재와 부재, 비움을 통한 채움, 육체를 통한 정신성의 고양 등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이 서로 수렴하고 소통하는 융합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통해 그의 작품은 가장 시각적이면서 촉각적인 감상이 가능하다. 작품 [도 22]는 아니쉬 카푸어의 대표적인 테마 Void 시리즈의 하나로 짙은 청색의 세 개의 구체가 벽면위에 붙어있다. Void의 사전적 의미는 빈 곳이라는 뜻으로 내부가 텅 빈 이 작품은 마치 동양의 음양이론이 형상화된 듯 안과 밖이 공존하고 비움과 채움이 역설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각적으로 가장 멀리서 보았을 때는 채워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음이 짙은 청색의 색으로 심연의 바다색을 형상한다. 유리섬유와 가루안료를 사용해서 만져보지 않아도 벨벳느낌 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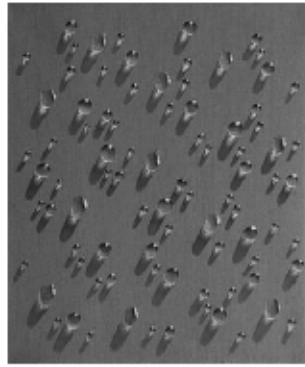
을 느낄 수 있다. 원은 동·서양을 통틀어 창조와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성의 자궁의 비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단순히 이질적인 동, 서양의 만남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신비로운 우주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그것은 곧 인간과 자연 본연의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다. 부박하고 현실적인 일상의 문제를 넘어 마음을 한번 쫓 가다듬고 삶의 진리를 돌아보며 마음의 정화를 얻을 수 있는 예술, 그는 그것이 진정한 예술이라 하였다.



[도 22] Anish Kapoor. 1990. 「Untitled」

김창렬 작품 [도 23]은 물방울을 주제로 극사실주의처럼 그림을 그려서 관객으로 하여금 실제 보고 있는 눈을 의심 할 정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한 장면을 연출하여 관객에게 시각적 감각을 자극한다. 그의 물방울은 실제 물방울의 묘사가 아님 ‘관념적’인 물방울로 해석되기도 한다.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 작품 [도 24]는 오펜하임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털로 덮인 잔, 반침접시, 숟가락>(1936)은 잠재적 에로티시즘과 남성이 주도하는 미술계에 대한 조롱이 담긴 작품이다. 그녀가 당시에 이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펜하임의 설명에 따르면 오브제에 성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은 거의 우연하고 부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오펜하임이 파리의 한 카페에서 파블로 피카소와 도라 마르와 우연히 나눴던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카소는 오펜하임이 차고 있던 털로 가장자리를 두른 팔찌를 칭찬하며, 모든 사물을 털로 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펜하임은 "이 컵과 반침접시도 그렇죠"라고 대답했다.



[도 23] 김창렬.
2004. 「회귀(回歸)」



[도 24] Meret Oppenheim.
1936. 「털로 덮인 잔, 받침접시, 숟가락」

고흐 작품 [도 25]는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으로 두껍게 물감을 쌓아올리는 유화의 기법으로 질감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마치 별이 움직이는 듯 한 시각적 각각 및 촉각적 감상이 모두 느껴지는 작품이다.

박수근 작품 [도 26]은 작품 안에서 모성적인 부드러움이 질감으로 표현하였다. 시각을 촉각으로 인식하는 작업은 작가가 우리나라의 화장암에서 느껴지는 질감을 조형화하여 옛 석탑, 석불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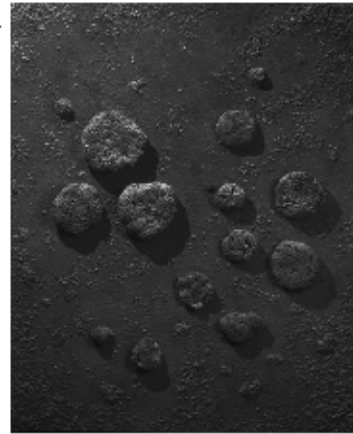
[도 25] Vincent van Gogh.
1889. 「별이 빛나는 밤」



[도 26] 박수근.
1963. 「아기보는 소녀」

이브클라인(Yves Klein)의 작품 [도 27]은 투명에 가까운 블루로 기억되는 화가로 그는 신비화 된 물감의 속성을 싫어했고, 뿌리고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그의 블루는 단순한 블루를 넘어 이브클라인만의 블루, [IKB - international klein

blue]를 이름 짓는다. 합성수지와 솔벤트를 혼합하고
 자들의 도움을 받은 구체적인 컬러의 탄생이었다.
 지를 활용하여 촉각적으로 튀어나온 블루가
 되었다.



화학
스펀
강조
[도

27] Yves Klein. 1959.

「Das blaue Schwammrelief」

일본 작가 Sosho Mochida의 작품 [도 28]은 점과
 이미지를 통해 입체적으로 펠트를 이용하여
 하였다. 점의 중첩과 비행기의 조화로 공간, 즉
 가 느끼는 Air를 구성하였다.



원의
표현
작가

[도 28] Sosho Mochida. 2008.

「LOCATION Air 2008」

클래스 올덴버그(Claes Thure Oldenburg)
 은 1960년대 소비문화와 대중문화의 현실을
 로 반영하는 팝아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오브제를
 하게 확대하여 관객의 심리에 시각적인 충격을
 든지 전기청소기나 선풍기 등의
 기계제품을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로 모조한
 적 작품을 전시하는 등의 촉각적인 변화의
 은 그의 일관된 방법론이다. [도 29]는 딱딱한
 를 부드러운 천으로 표현하여 뒤샹의 「샘」이
 한 변기가



작품
그대
주위
거대
준다
경질
해학
발상
변기
익숙

아닌 낯선 물건이 된 것처럼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고 촉각적인 부드러움을 표현한다.

Claes Thure Oldenburg.
 1966. 「Soft Toi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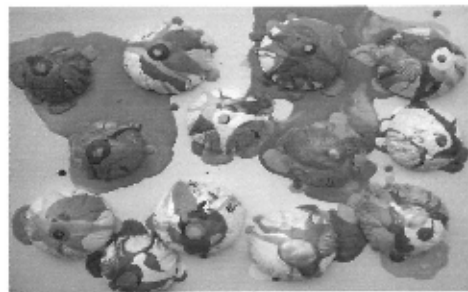
김재형 작품 [도 30]는 거친 표면의 시멘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아주 부



드러온 재질로 제작되었다. 부드러운 재질의 작품을 살짝 들에 괴어 놓아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던 사물의 재질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시각에 의심을
[도 30] 김재형, 2011.
하게 되어 직접 만져보며 확인하도록
「핑키를 위한 비석」 하는

촉각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최예진 작품 [도 31]은 <Touch me> 시리즈를 통해 자연의 이미지를 작가가 느낀 경험을 단순화된 이미지로 연결하여 촉각적 오브제를 사용하였다. 수십 개의 원형 반구를 붙이고, 그 위에 물감을 칠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물감이 중첩되어 굳어지면서 원형반구라는 촉각적 오브제를 더욱 부각시켜 캔버스라는 2차원적인 공간을 오브제를 통해 3차원의 공간으로 확장시켜 소통을 위한 방식으로 촉각을 결합시켰다.



[도 31] 최예진, 2012.
「Touch me_27」

Ⅲ.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계획

본 연구는 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하나의 점을 형태적으로 크게는 원으로 구현하여 반구형의 작은 원과 큰 원의 배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점의 시작은 ‘점’을 가장 작게 표현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점의 깊이 감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시각적, 촉각적 texture 연구를 통해 그것이 직접 소통하는 점의 표현으로 이어졌다. 점으로 시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 ‘점자’의 구성을 활용하여 일반인에게 점(원) 하나의 개체 표면에 다양한 texture 변화로 시각적, 촉각적인 즐거움을 전달하고 점이 갖는 의미를 찾아 연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각각의 점은 하나의 원의 구성요소로 점자의 구성에 앞서 시를 선택하였다. 본인

은 이번 연구에서 하나의 작은 점은 자세히 들여다봄으로 인한 그 아름다움과 깊이
내재된 점의 이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점은 멀리 보는 하나의 별의 이
미지와 같다하여 별의 이미지와 점의 이미지가 잘 어우러져 표현가능한 시인 윤동
주의 시, 「별 헤는 밤」에서 별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시 구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6구절을 선택, 발췌하였다.

별 헤는 밤

윤동주(尹東柱 1917~1945)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는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별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본시의 제목 ‘별 헤는 밤’과 선택된 6구절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어머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표현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하나하나 개체에 7가지 시각적, 촉각적 요소의 효과로 표현함으로써 직접 느낄 수 있는 원안에서의 다양함과 즐거움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각 개체는 발췌된 제목과 6구절을 ‘점자’로 배열함으로써 점의 표현과 점이 가지는 반복과 울동감을 통해 시각적으로 단순하면서도 함축된 이미지로 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점의 이미지가 갖는 시각적 요소와 촉각적 요소가 주는 즐거움을 대중과 느끼고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각 점은 7가지의 표면 장식을 갖게 되지만 문장마다 통일된 series 표현 방법으로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각 문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별 헤는 밤_ 각 개체 표면에 점이 찍힌 효과
- (2) 별 하나에 추억과_ 각 개체 표면에 점의 형태로 점을 채워준 효과
- (3) 별 하나에 사랑과_ 각 개체 표면에 점이 튀어나와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낄 수 있는 효과
- (4) 별 하나에 쓸쓸함과_ 각 개체 표면에 일정한 선의 형태로 찍어진 효과
- (5) 별 하나에 동경과_ 각 개체 표면에 개체 표면에 일정한 형태로 찢어진

효과

- (6) 별 하나에 시와_ 각 개체 표면에 다양한 형태로 가라앉은 효과
- (7)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_ 각 개체 표면에 외부에 힘에 의해 눌러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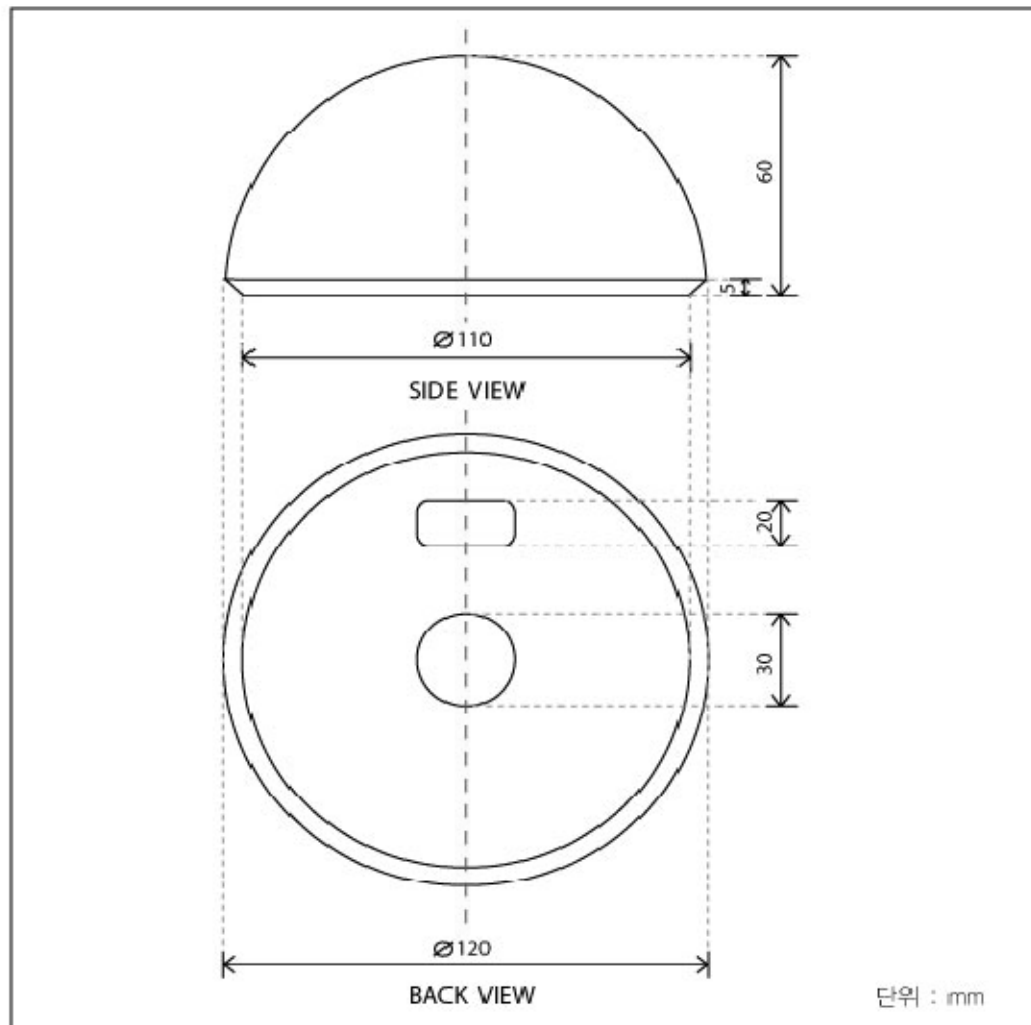
[표 3] 자음 ‘바’의 점자구성표

(1)	(2)	(3)	(4)
			
(5)	(6)	(7)	
			

2. 제작과정

1) 도면제작

점자를 이루는 6개의 점(원), 종으로 3점, 횡으로 2점의 구성은 크기가 다른 두 원으로 한다. 점자에서 양각되어진 점, 즉 글을 나타내주는 점을 큰 원으로 하고 글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 점자의 구성에 포함되는 양각되지 않은 점을 작은 원으로 구분하였다. 원형의 크기는 큰 원은 지름이 15cm로 하고, 작은 원의 지름을 12cm로 하였다. 각 원형의 뒷면은 자석의 부착을 위해 미리 자석의 위치를 준비해 주었다. 무게와 설치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큰 원형은 자석부착을 2개 예상하였고 작은 원형은 자석을 1개를 부착하기로 결정하였다. [도면 1], [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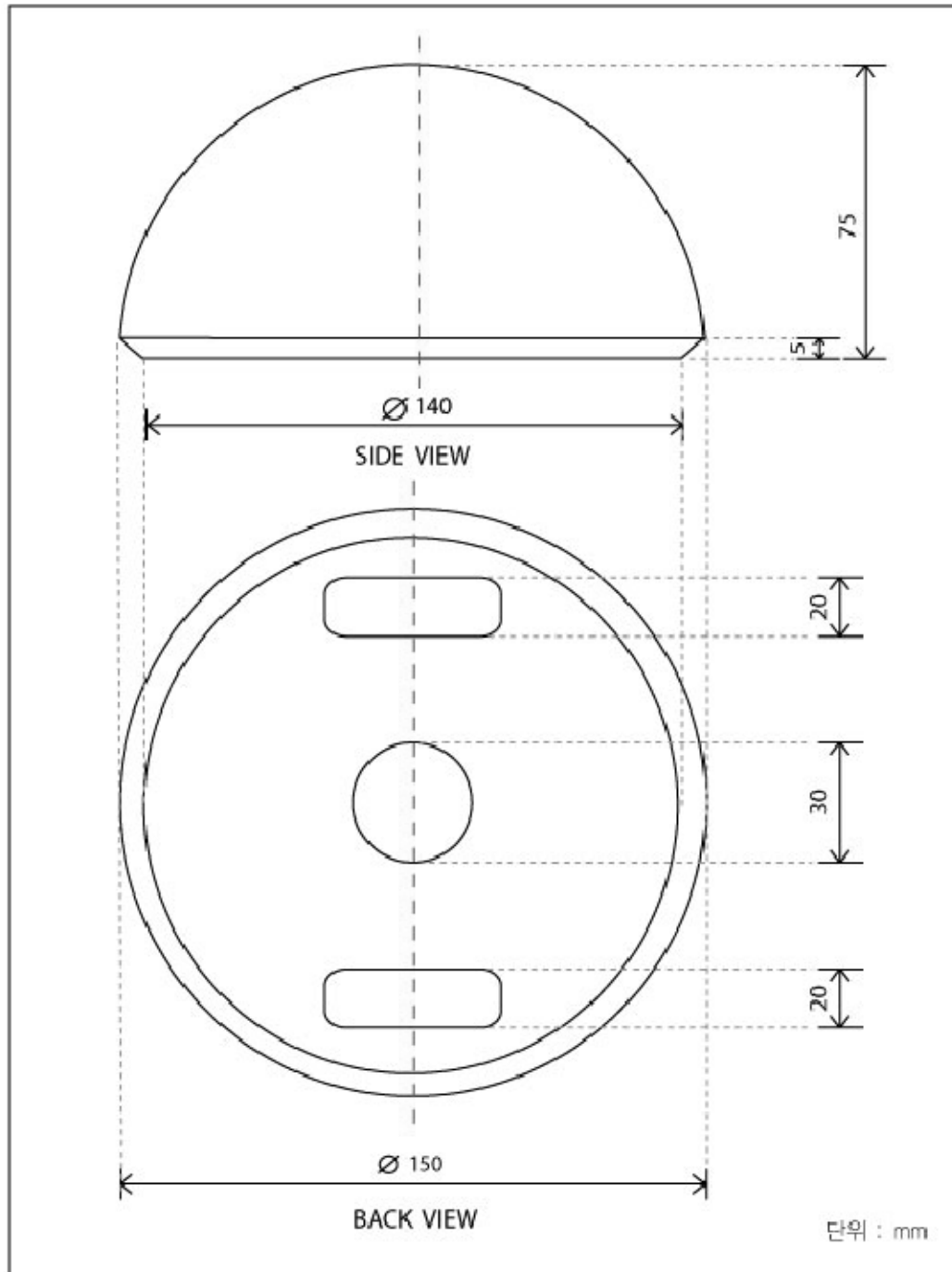
[도면 1] 원형 도면_1

[도면 2] 원형 도면_2

2) 석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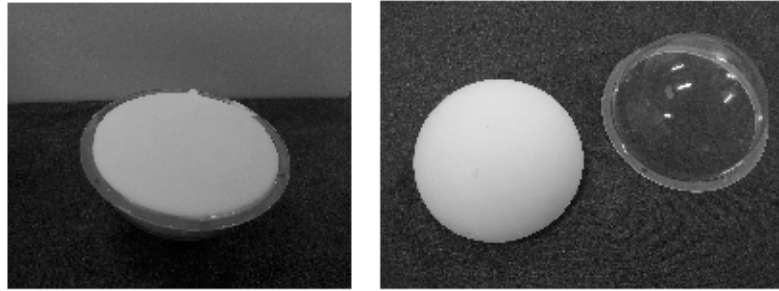
(1) 원형

아크릴 반구를 이용하여 석고를 부어 크기가 다른 두 원의 원형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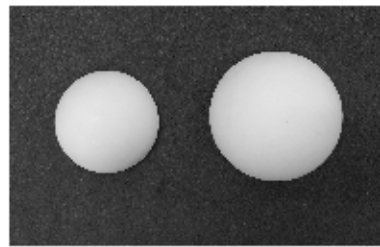


아크릴 반구의 표면에 카리비누를 바른 후 석고를 부어주고, 고무망치로 두들겨 줄 경우 원형의 파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부어주면 아크릴 반구와 원형이 쉽게 분리된다. [도 32], [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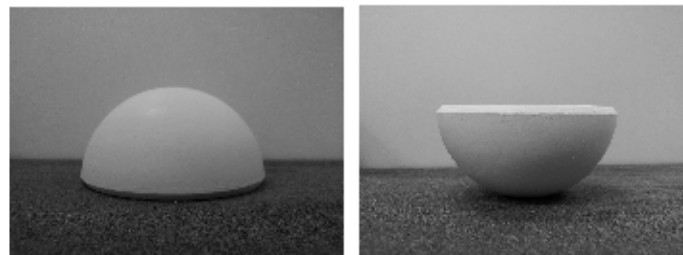
원형은 이장주입성형 시 탈형이 용이하도록 원형의 바닥에 굽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작품의 탈형 및 소성 시 손상을 막고 원형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벽에 부착했을 때 심미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도 안정적인 효과가 있다. [도 34]



[도 32] 아크릴 원형 제작과정



[도 33] 크기가 다른 석고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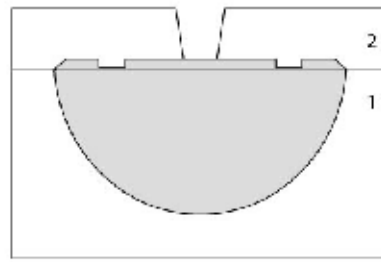
[도 34] 원형의 굽

(2) 원형 사용형 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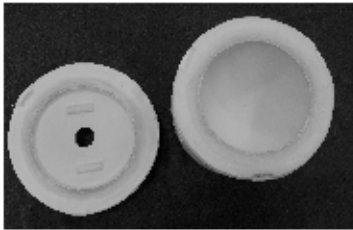
완성된 원형을 이용하여 사용형 틀을 제작한다. 작품에 필요한 수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형 틀은 작은 원형 틀, 큰 원형 틀을 각각 10개씩을 제작하였다.

석고 틀 아랫부분(1)은 굽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 만큼 석고를 부어주고 석고 틀의 위 부분은(2) 원형의 굽, 자석 부착 면과 주입구를 포함한다.

[도 35, 3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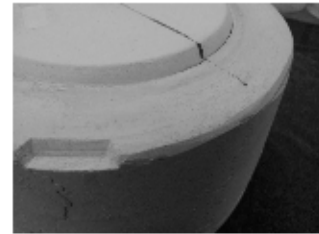
[도 35] 사용형 틀 도면



[도 36] 사용형 틀



[도 37] 사용형 틀 (1)



3) 성형과정

(1) 소지

본 작품에 사용된 소지는 대량생산에 가장 적합한 슈퍼화이트를 선택했다. 슈퍼화이트 소지는 작품에 적용 될 여러 가지 시각적, 촉각적 요소의 표현이 자유롭다. 성형하기에 적당한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구겨진 표현의 다양성이 쉽고 백색도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표 4] 슈퍼화이트 소지 조합비

성분	SiO ₂	Al ₂ O ₃	Fe ₂ O ₃	CaO	MgO	Na ₂ O	K ₂ O	TiO ₂	Loss
조합비 %	72.69	18.71	0.18	0.09	0.05	0.69	2.00	0.05	5.53

[표 5] 슬립조합비

재료	소지	물	해고제
%	64	35.8	0.2





(2) 표면장식_7가지

점자를 구성하는 두 원은 언어기호적인 역할을 하는 원과, 의미는 없지만 시각적 요소로서의 원으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개체로 구성된다.

글의 의미를 포함하는 큰 원은 각 개체 표면에 시각, 촉각적 표현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6_1, 2, 3, 4, 5, 6, 7] 글의 의미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시각적 요의 원은 다음과 같다. [표_6]

- (1) 각 개체 표면에 점이 찍힌 효과
- (2) 각 개체 표면에 점의 형태로 점을 채워준 효과
- (3) 각 개체 표면에 점이 튀어나와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낄 수 있는 효과
- (4) 각 개체 표면에 일정한 선의 형태로 찍어진 효과
- (5) 각 개체 표면에 개체 표면에 일정한 형태로 찢어진 효과
- (6) 각 개체 표면에 다양한 형태로 가라앉은 효과
- (7) 각 개체 표면에 외부에 힘에 의해 눌러진 효과
- (8) 각 개체 표면에 장식이 없는 기본 원형

[표 6] 7가지 시각적, 촉각적 연구_완성

(1)	(2)	(3)	(4)
			
(5)	(6)	(7)	(8)



4) 설치계획

(1) 점자구성

선택 된 시인 윤동주 「별 헤는 밤」의 발췌된 구절의 점자구성은 다음과 같다. 점자의 한 음절을 구성하는 6개의 점 중에서 언어적 요소는 큰 점으로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점은 작은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있다. [도 38]

별 헤는 밤 · 윤동주	⠠ ⠠ ⠠ ⠠ ⠠ ⠠	⠠ ⠠ ⠠ ⠠ ⠠ ⠠	⠠ ⠠ ⠠
(발췌)			
별 하나에 추억과	⠠ ⠠ ⠠ ⠠ ⠠ ⠠	⠠ ⠠ ⠠ ⠠ ⠠ ⠠	⠠ ⠠ ⠠ ⠠ ⠠ ⠠
별 하나에 사랑과	⠠ ⠠ ⠠ ⠠ ⠠ ⠠	⠠ ⠠ ⠠ ⠠ ⠠ ⠠	⠠ ⠠ ⠠ ⠠ ⠠ ⠠
별 하나에 쓸쓸함과	⠠ ⠠ ⠠ ⠠ ⠠ ⠠	⠠ ⠠ ⠠ ⠠ ⠠ ⠠	⠠ ⠠ ⠠ ⠠ ⠠ ⠠ ⠠ ⠠ ⠠ ⠠
별 하나에 동경과	⠠ ⠠ ⠠ ⠠ ⠠ ⠠	⠠ ⠠ ⠠ ⠠ ⠠ ⠠	⠠ ⠠ ⠠ ⠠ ⠠ ⠠
별 하나에 시와	⠠ ⠠ ⠠ ⠠ ⠠ ⠠	⠠ ⠠ ⠠ ⠠ ⠠ ⠠	⠠ ⠠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 ⠠ ⠠ ⠠ ⠠	⠠ ⠠ ⠠ ⠠ ⠠ ⠠	⠠ ⠠ ⠠ ⠠ ⠠ ⠠ ⠠ ⠠ ⠠ ⠠

[도 38] 윤동주 「별 헤는 밤」 점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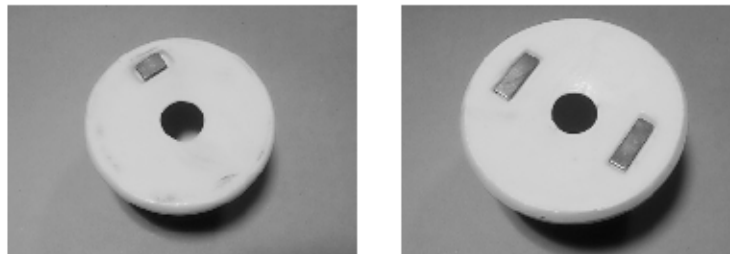
(2) 자석을 이용한 설치

개수가 많은 작품의 전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설치방향 연구를 진행하였다. 벽면에 기물을 부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못을 이용하거나 접착제, 양면테이프, 자석 등이 있다. 본인의 작품은 기물의 무게가 가볍고 점자로 배열해야 하기 위해 개수가 약 600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석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석을 이용한 설치의 또 다른 장점은 추후 다른 메시지로의

가변성이 좋다.

기물의 설치 시 자석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조사를 한 결과, 자석은 부착 면과 자석의 관계에 있어서 당겨주는 힘이 있어야 강한 자력을 생성된다. 자석을 붙일 수 있는 것의 다양한 철망, 철판의 경우 두께나 강도에 따라서 자력의 차이가 있다. 즉 철망의 경우 가벼운 장점이 있지만 기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석을 붙여서 철망에 부착했을 때 고정되지 않고 흐르게 된다. 두꺼운 철판의 경우 철망에 비해 무거운 단점이 있지만 강한 자력이 형성되어 기물의 고정에 탁월하다.

본인은 작품의 설치를 위해 자석은 네오디뮴자석²⁵⁾을 사용하였고 두께가 1mm의 2mm 타공 철판에 부착하였다.



[도 39] 자석 부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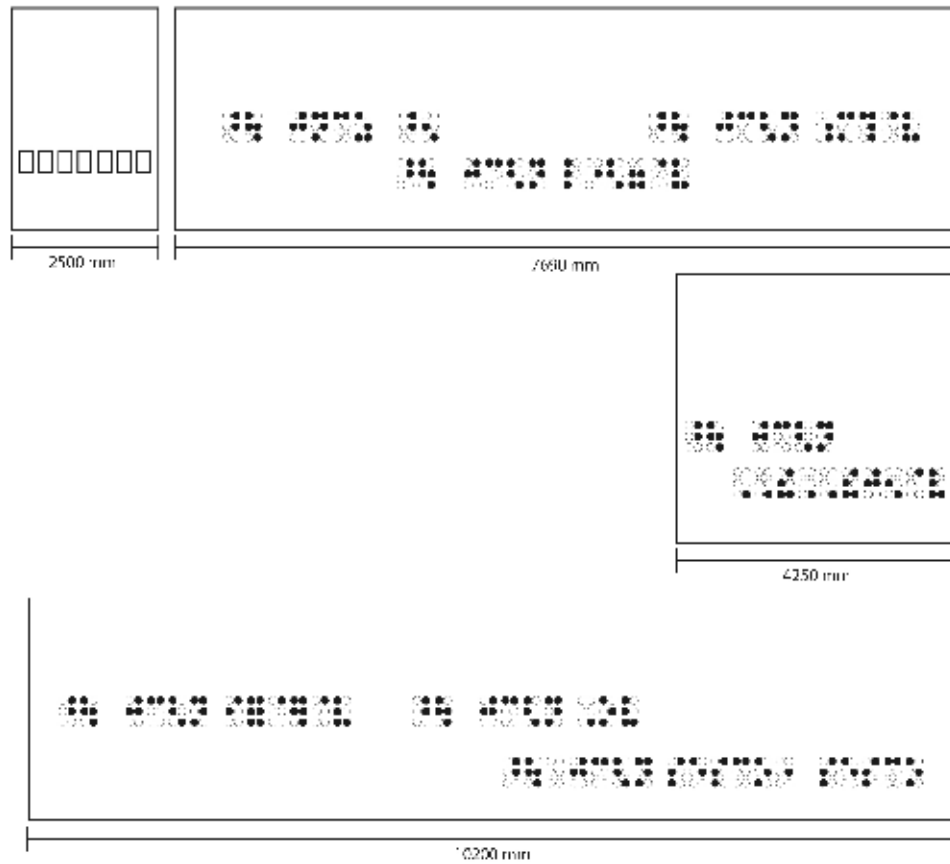


[도 40] 자석 부착 사진 _ 전시장 예시

(3) 전시장 설치계획

전시장 공간연출을 위해 제목과 6구절의 총 7문장을 문장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문장의 길이를 고려하여 각 3문장, 1문장, 3문장으로 나눠서 설치 계획하였다. 전시의 주제인 점의 이미지를 시「별 헤는 밤」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점자와 한글로 직접 전달 가능한 도판 작업도 함께 진행해주었다.

25) 네오디뮴자석 : 매우 높은 보자력(자석으로서 끌어당기는 힘)을 갖는 자성재료로서 희토류 원소와 코발트의 합금으로 희토류 원소를 함유한 경자성재료(영구 자석으로 알맞은 재료)로서 만들어진 자석을 희토류 자석이라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네오디뮴, 철, 붕소의 희토류 소결자석을 혼합하여 만든 것을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한다. 부피가 작으면서도 뛰어난 자기 특성을 가진 자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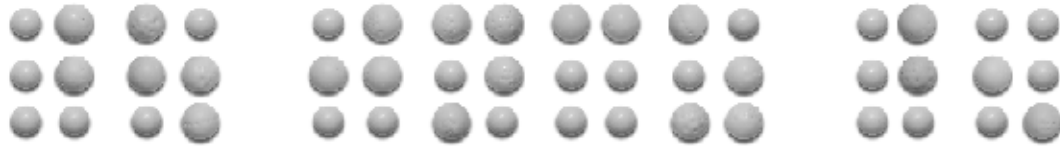
[도 41] 전시 설치 도면

3. 작품해설

[작품 1] 별 헤는 밤

‘별 헤는 밤’ 점자 구성에 적용된 표현은 도자기 기면위에 점을 찍어 표현하는 효과이다. 하나의 개체에는 하늘의 별의 형상을 표면에 도구를 사용해 점을 찍어주어 점의 시간성을 표현하고 ‘별’과 ‘밤’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는 점의 움직임으로 변화되는 요소를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늘의 별이 떠 있듯 각 개체의 표면의 점은 일정

하기도 하지만 때론 불규칙하게 점으로 눌러주어 반짝이는 별의 흐름을 표현해주었다. 직접 만져 보았을 때 촉각적으로는 울퉁불퉁 들어간 점의 흐름이 손으로 느낄 수 있다.



[작품 1] 「별 헤는 밤」 Ø125xh65mm, 450x2500xh65mm, Slip Casting,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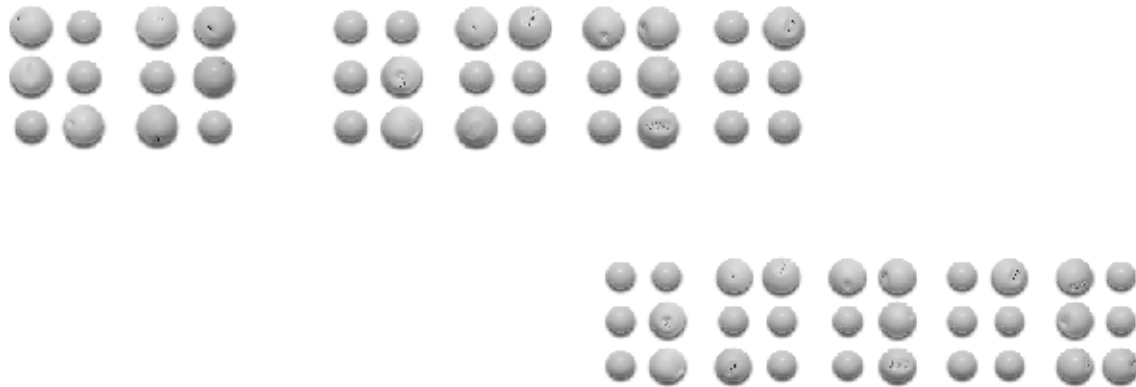


[도 42] Detail_ (1)

[작품 2]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추억과’ 점자 구성에 적용된 표현은 기물표면에 제한된 공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채워주는 효과이다. 각 개체의 표면에 도구에 의한 사각형의 영역을 구성하고 그 안에 점을 찍어주어 점의 요소로 시간을 기록해주었다. 본인이 느끼는 ‘별’과 ‘추억’의 이미지를 점의 형상으로 찍고, 눌러주어 추억을 기록하여 시각적으로 점의 다양한 변화요소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각 개체는 틀에서 탈형한 후 바로 도구를 사용해서 사각형의 영역을 눌러 표현하고, 반 건조 상태에서 점

을 찍어주거나 구멍을 뚫어주었다. 기물의 건조 상태에 따라 찢어지거나 깨질 수 있다. 점의 표현이 된 부분은 유약시유를 하지 않아 직접 만져 보았을 때 도자기 표면의 매끄러움과 거친 차이로 다양한 촉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작품 2] 「별 하나에 추억과」

Ø125xh65mm, 450x3200xh65mm, Slip Casting,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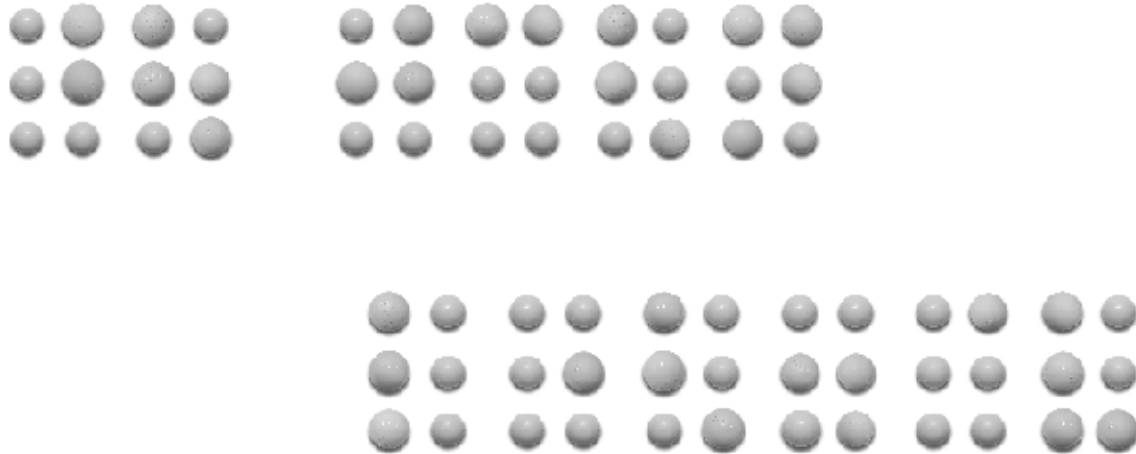
[도 43] Detail_ (2)

[작품 3]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사랑과’ 점자 구성에 적용된 표현은 점이 튀어나와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낄 수 있는 효과와 유약의 효과에 의한 촉각의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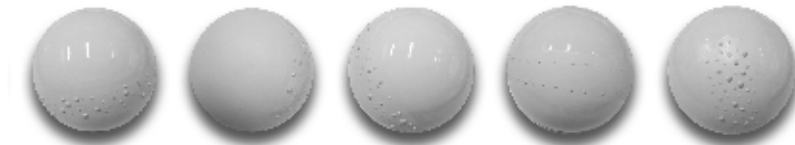
각 개체 표면에 주사기에 색슬립을 주입해서 일정량을 적용하여 ‘별’과 ‘사랑’의 이미지를 튀어나온 점으로 표현해주었다. 사용된 Turkish Blue 색 슬립은 가장 별이 있는 하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color로 은은하고 제한된 색상의 표현으로 별의 이미지를 나타내주었다. 기물위에 하나씩 찍힌 점은 마치 별의 흐름으로 보이고 직접 손으로 만졌을 때 사랑스러움이 느껴진다. 표면에 오돌도돌 튀어나온 부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유도했고, 점의 효과는 유약의 의해 시유하거나 시유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효과를 느껴 볼 수 있다.



[작품 3] 「별 하나에 사랑과」

Ø125xh65mm, 450x3500xh65mm, Slip Casting,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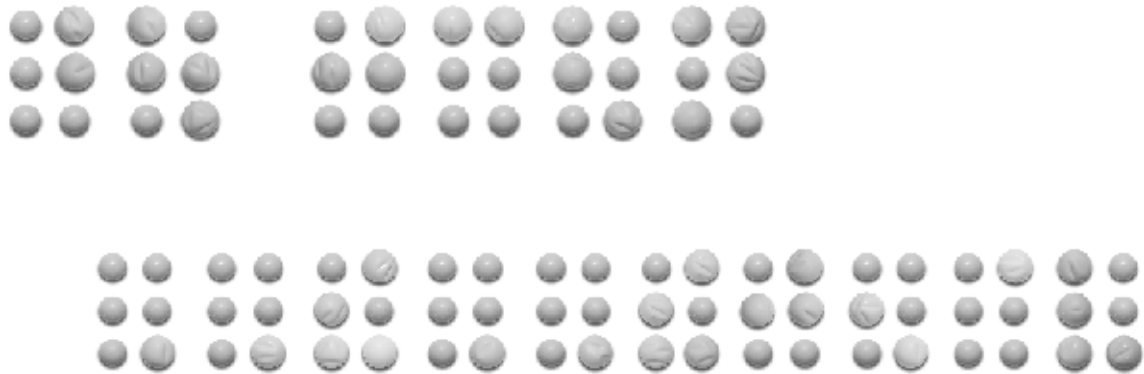


[도 44] Detail_ (3)

[작품 4]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점자 구성에 적용된 표현은 각 개체 표면에 선의 일정한 형태로 찍어진 효과이다. 각 개체의 표면에 선으로 점을 찍어주어 다양한 선의 변화를 표현해주었다. 기물을 틀에서 탈형한 후 반 건조 상태에서 자를 이용하여 눌러주었는데 여러 개의 선의 구성이 이루어진 기물에서는 건조가 진행되면서 눌러준 선의 방향으로 선을 따라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의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점을 통한 ‘쓸쓸함’의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절제된 선의 흐름을 나타내어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 보았을 때 선의 길이의 변화와 힘에 의한 선의 깊이감이 다른

촉각을 느낄 수 있다.



[작품 4] 「별 하나에 쓸쓸함과」

Ø125xh65mm, 450x4500xh65mm, Slip Casting,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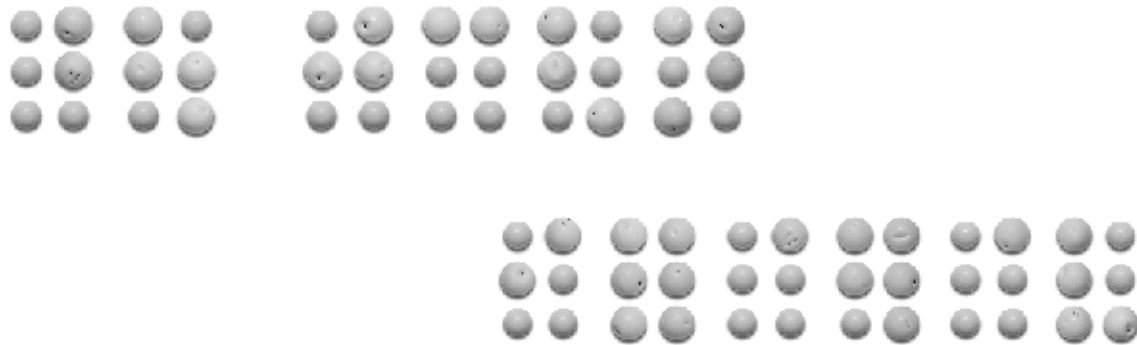


[도 45] Detail_ (4)

[작품 5]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동경과’ 점자 구성에 적용된 표현은 점의 일정한 형태의 이미지로 찢어진 효과이다. 각 개체의 표면에 점을 찢어주는 표현 효과로 찢어진 점의 공간 속으로 들여다보고 느끼는 갈망의 느낌을 표현해주었다. 동경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함 또는 마음이 스스로 들떠서 안정되지 아니함으로 정의한다. ‘별’과 ‘동경’의 이미지를 점이 찢어진 다양한 변화된 표현으로 개체 표면위에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과 촉각에 의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기물은 반 건조 상태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기물의 표면을 찢어 주었

는데, 탈형 후 바로 표현해주면 형태에 변형이 발생하고 건조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깨질 수 있다.



[작품 5] 「별 하나에 동경과」

Ø125xh65mm, 450x3500xh65mm, Slip Casting,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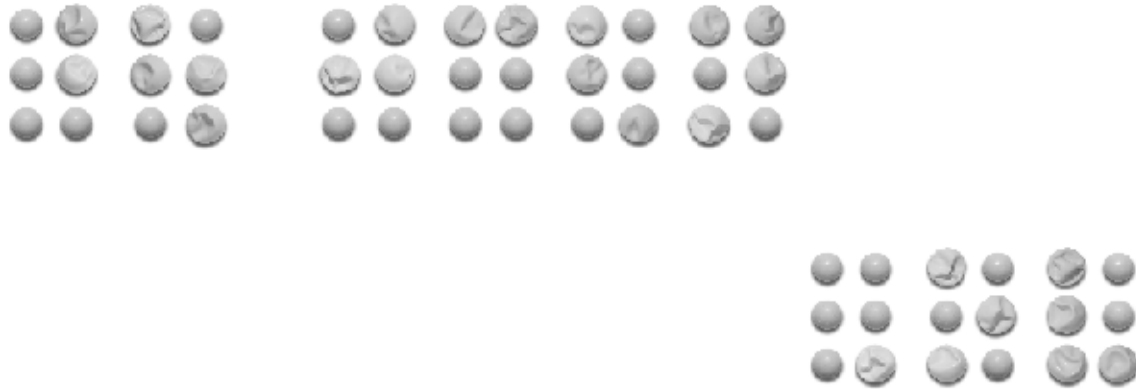


[도 46] Detail_ (5)

[작품 6]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시와’ 점자 구성에 적용된 표현은 점의 자유로운 형태의 이미지로 가라앉은 효과이다. 각 개체의 표면에 외부에서 힘을 주어 작품에 적용된 7가지 다양한 변화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성형 시 외부의 힘에 의해 물성적인 변화를 얻어 소성 시 가마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가라앉음 효과는 시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잘 반영되었고 ‘별’과 ‘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자유롭게 변화되는 요소를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 보았을 때 찌그러진 표현들의 적극적인 즐거움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관객이 직접 경험을 통해 ‘별’과 ‘시’의 이미

지를 느껴 작품과 소통가능하다.



[작품 6] 「별 하나에 시와」 Ø125xh65mm, 450x2700xh65mm, Slip Casting,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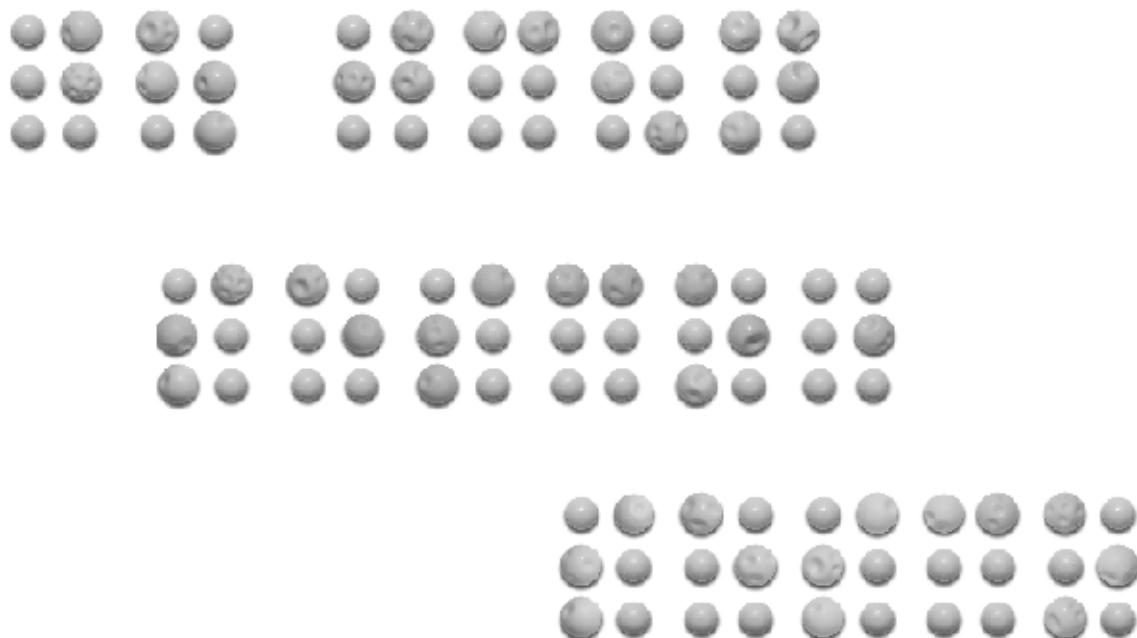


[도 47] Detail_ (6)

[작품 7]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점자 구성에 적용된 표현은 외부에 힘에 의해 눌러진 효과이다. 각 개체의 표면에 손으로 힘을 주어 눌러 표현해주었다. 표면이 눌러진 형상만으로 ‘별’과 ‘어머니’의 이미지를 시각, 촉각적인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점의 변화되는 요소를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 보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표면에 눌러진 점들의 개수와 깊이를 통해 어머니의 무한사랑을 인지 할 수 있으며 절제된 감정으로 산만하지 않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의도하였다. 전시 된 문구 중에서 가장 긴 구절로 전시 디피 시 5m의 공간을 차지한다. 또한 필요한 개체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개체의 변화 속에서 동일한 흐름의 점의 구성을 갖고 규칙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작품 7]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Ø125xh65mm, 450x5000xh65mm, Slip Casting,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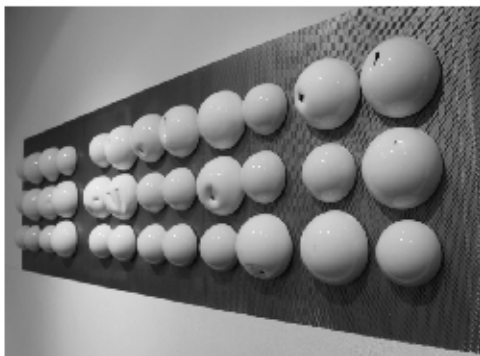
[도 48] Detail_ (7)

전시장 전경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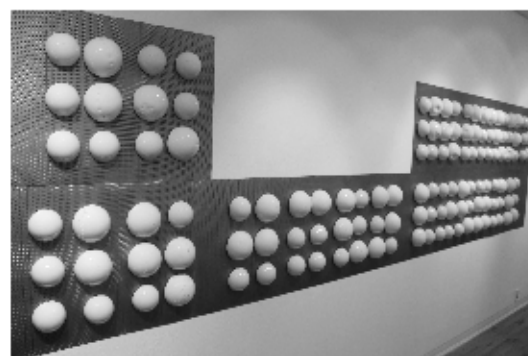
전시장의 벽면을 활용하여 윤동주 시인의 시「별 헤는 밤」의 제목과 발췌된 6구절을 각 벽면에 철판과 자석을 이용하여 배치함으로 공간연출을 구성하였다. 한 문장의 전체적인 설치 높이는 관람자가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눈높이 위치로 높지 않게 설치하였고 각 문장마다 각기 다른 시각적, 촉각적 표현효과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소통 할 수 있었다.



[도 49] 전시장전경 A



[도 50] 전시장전경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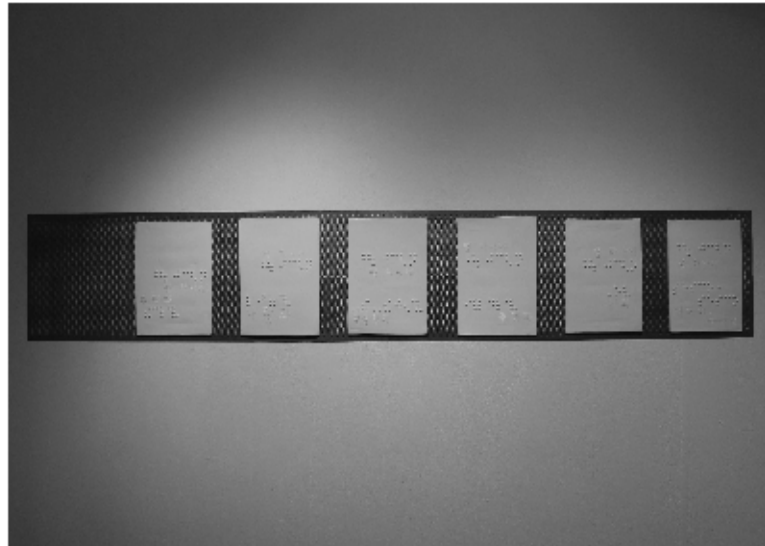


[도 51] 전시장전경 C

전시장 전경 D (도판작품)

미술작품을 보러 온 일반인 관람객에게 점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 도판 작품을 제작하였다.

실제 양각된 점자처럼 도판에서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점자의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본 작품으로의 연결하여 대중에게 감상의 폭을 넓혀주었다.



[도 52] 전시장 전경 D

IV. 결 론

점으로부터, 점으로 이어지는 점의 이미지는 다양한 texture를 갖고 점자 언어기호의 구성을 빌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의 점은 또 하나의 원을 만들어내는 형태적 특성을 갖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구현 할 수 있으며 가장 단순하지만 반구형의 점과 원의 반복된 도자조형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예술작품에서의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소통은 현대 미술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요소로서 ‘점’은 소통이 가능한 점자의 이미지를 통해 점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texture로 표현된

시각적, 촉각적인 다양한 효과를 주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작품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소통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첫째, 점의 이미지를 하나의 반구형의 원의 배열로 점자를 구성하고 점자를 통한 메시지와 시각적, 촉각적 texture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점자를 이루는 6개의 점은 점자의 구성만으로 시각적 아름다움과 재미를 전달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

둘째, 점을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식기법으로 시각언어의 점자의 구성을 촉각언어로 확장하여 표현하였다. 점을 찍거나 일정한 공간에 점을 채워주거나 점이 튀어나와 손으로 직접 만져 볼 수 있으며 찢어지거나 가라앉고 눌러진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다. 이 모든 효과는 눈으로 손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시각적, 촉각적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수량이 많은 개체들의 효과적인 배열을 위해 여러 가지 설치방법을 연구하였다. 못, 접착제, 양면테이프, 자석의 방법 중 자석과 철판을 활용하였으며 기물에 미리 자석의 부착 면을 만들어주고 자석을 부착하여 철판과 자석의 강한 자력을 통해 전시기간 중에 파손우려를 줄일 수 있었다. 자석의 활용은 일회적인 전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열의 변화를 주어 또 다른 배치의 구성이 가능함을 배울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 작업을 진행하면서 점의 이미지의 연구와 작품과 작가, 작가와 관람자,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예술의 소통의 이론적 개념을 실제 작업에 적용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작업에 적용하지 못한 다양한 색상에 대한 이해와 시각적 변화는 추후 보완하여 시각에 의한 촉각의 다양한 즐거움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점의 이미지의 또 다른 형태적 연구와 다양한 시각적, 촉각적 표현요소의 연구로 효과적인 소통방법을 얻고 더욱 창의적으로 연구 발전된 도자조형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김환기 외 9명 (2007). 「환기재단 공모작가 기획전_점으로부터, 점으로」, 환기미술관
- [2]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997). 「점 · 선 · 면」, 차봉희역, 열화당미술책방
- [3] 박기웅. (2006). 「현대미술이론3」, 서울:형설출판사
- [4] 박미정. (2013). 「김환기탄생 100주년_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환기미술관

- [5] 배순훈, 변용식. (2011). 「THE AMERICAN ART 이것이 미국미술이다」, 국립현대미술관
- [6] 이견복. (2006). 「철학, 예술을 읽다」, 동녘
- [7] Anish Kapoor. (2012). 「Anish Kapoor/Object」 Leeum
- [8] Gramit. (1995). 「지각의 심리」 신명희 역, 학지사
- [9] Lawrence, K. (1996). 「Pain and Touch」, Academic Press

학위논문

- [10] 강창성. (2008). 「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김은영. (2010). 「시각 · 촉각 · 청각적 감각 체험을 통한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12] 김수진. (2005).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김재형. (2012). 「촉각과 시각의 통감각적 표현에 관한 작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김해민. (2008). 「tactuaL [시: 각] series:시각 정보의 체험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점필표현의 촉각적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백민정. (2010). 「원의 반복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6] 이혁진. (2006). 「원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7] 장형석. (1998). 「매체 및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시각예술의 반응 양상과 소통적 기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8] 최보아. (2012). 「매체이용 속성에 따른 교육수용자의 시각적 학습몰입 실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 박사학위 논문
- [19] 최예진. (2012). 「촉각적 오브제를 활용한 회화연구_본인작품 <Touch me> 시리즈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
- [20] 최지숙. (2007). 「선인장을 모티브로한 도제 화기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1] 허경지. (2011). 「점자 촉각 교재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현대미술관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홍종숙. (2002). 「도자식기를 위한 테이블 코디네이션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논문

[18] 이인. (2007). 「현대사회와 소통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한국도자조형학회논문

정기간행물

[19] 월간도예 2011. 2월호

웹사이트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1] 두산백과

[22] 국어국문학자료사전

[23] 교육학용어사전

[24] 점자세상 <http://www.braillekorea.org/>

Abstract

Title: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motivated by the Image of Dot

- focus on an expression sense of visual and tactile

Yang, Kyung Hee

(Supervisor Lee, Myung Ah)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other human beings, societies, cultures and materials. Social interactions depend on delivering messages for communication between agents and for the arts; communication is an integral element in all social interactions. Fine arts try to communicate through the five human senses (vision, touch, hearing, smell, taste), culminating in the visual beauty formed in the audience's minds.

This study focuses on the way images of dots as the motive in communication among people through variations and repeated expressions of dots. By use of vision and touch, this communication through dots go beyond the normal relationships between the artist and the artwork, the work and audience, or the audience and the presented work, all based primarily on visual contact. The "Braille" points, recognized not only by vision but also used for communication as dots, have their original function in lingual communication.

The Braille device communicates even with the smallest dots and for most normal people its form expresses exquisite beauty. Therefore, the device links points and language as the most touch-based communication method.

The researcher aims to emphasize the various joys to express in each object through various visions and touch expressions in the studies by using the works composed of the "Braille" points.

In Chapter II, with a theatrical perspective on points, refined beauty in the images of points was sought. The point is the smallest particle when it is magnified but when many points successively unite they can be seen as lines and planes. Again, if the point is magnified further, it is understood as a point. Various methods of expression to give people direct experiences and to deliver joy to them by methodological visions and touches. Changes of various genres of paintings are the theatrical backdrop to this study.

In Chapter III, in order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the works, plans and expressions of seven (7) ceramic surfaces for vision and touch effects in the

process were described. Also, for the art with greater explanations, the display plan using magnet and iron plate was also explained.

In summary, this study utilized the images of dots expressed in a hemisphere and used the physical features of ceramics, describing the changes of texture in both senses, visual and tactile, as they deliver joy and happiness to people from communications by the images of dots.